

인플루엔자(독감) 및 유행성 이하선염예방 관리 안내

인플루엔자(독감) 및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안내드리오니 인플루엔자(독감) 및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차단·확산방지를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독감)이란 ?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상부 호흡기계(코, 목)나 하부 호흡기계(폐)를 침범하며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독감) 감염경로

-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
-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방법

- 유행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호흡기 질환 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9월~11월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등 기침예절과 개인위생 준수를 강화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 유행성 이하선염이란?

유행성 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 라고도 하며 이하선(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 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보통 14~18일 정도이며 25일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1~2일전부터 발현 5일 후까지이며, 증상 발현 5일까지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인 이하선염 외에도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경우는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 MMR 예방접종의 중요성

MMR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MMR예방접종을 생후 12~15개월, 만4~6세에 2회 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MMR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MMR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의 학생들은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예방관리

1.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유행성이하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에게 자녀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3. MMR의 예방접종력이 없고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는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합니다.
(학원 등도 가지 않습니다)
4. 손 씻기를 자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합니다.
5. 타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소독하여 사용 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2015년 4월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